

# 안전제일 경영으로 무재해 15배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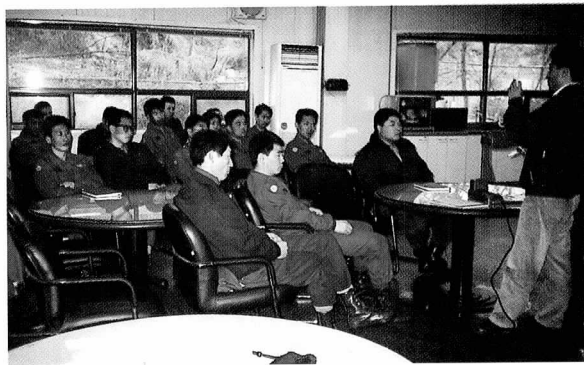


황동률 회장

**포** 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에 위치한 (주) 거양은 비철금속제조업체로서 주 생산품인 Zn-Anode(아연 전극)을 생산하고 있다. 87년도 거양금속(주) 법인 설립 Zn-Anode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태에서 국산 대체 업체로 지정되어 비철금속 제조품의 국산화 사업에 심혈을 기울려 생산에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나날이 다양화되고 그 수준이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신 설비를 갖추고 과학적인 체계하에 기술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축적된

기술과 폭넓은 바탕으로 양질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 전국 유일의 Zn-Anode 전문 생산공장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이다.

전기로 가동업체로서는 보기 드문 환경친화적인 업체로서 공장내, 외곽 전체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려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주) 거양은 인간존중의 바탕아래 "인화단결", "근면성실", "창의창달"의 사훈아래 전직원의 한결같은 마음과 뜻이 어우러져 1989년 01월01일부로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이후 2000년 06월25일부 무재해 15배수를 달성하였다.



(주) 거양의 안전보건의 주요 추진기법 및 활동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잠재위험 발굴운동 활성화로 재해예방

원재료 장입시 설비구조상 SOW FURNACE COVER을 OPEN 시킨채 O·H CRANE을 이용 장입함으로 인하여 용탕 끓는 현상 및 전기로 내의 용탕 온도(450~480°c)에 작업자가화상 및 폭발 등에 의한 중대재해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FURNACE COVER CLOSE 상태에서 CYLINDER로 장입하는 TYPE으로 변경하여 갑작스런 용융 부상으로 인한 화상재해 및 COVER를 닫고 유압 실린더 장입으로 인한 추락재해를 예방하였다. 또한 구조 설비중 유해, 위험요인을 내포한 설비의 문제점 및 작업방법을 발취하여 잠재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 2. 안전점검 생활화

전사원이 안전점검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점검은 무재해 5C운동(복장단정, 정리정돈,



청소청결, 점검확인, 전심전력)을 적극 활용하여 My Zone Area을 설정, 구역 책임자로 하여금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다.

### 3. 작업전 위험예지 활성화

작업은 2교대로 실시되고 있어 팀별 작업전 One Point 위험예지활동을 통해 지적확인, 구호 제창 및 TOUCH & CALL을 실시하고 있다.

### 4.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의거 안전교육 실시

팀별로 잇따른 사고 사례 및 공정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을 작업전에 10분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현장 안전책임자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행요원이 분기 1회 중대재해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동종 또는 유사재해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작업자 안전의식 고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외 공장장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을 지정 현장 순회점검을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즉시 개선 보완하고, 주기적인 소방활동 실시 등 안전보건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한 결과 무재해 개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은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내실있는 안전활동 전개해 무재해 20~30배수의 무재해 신기원을 이룩하겠다는 당찬 야심을 갖고 있다. 